

김관영 지사, 9월 소통의 날 행사 개최

이차전지 특화단지 관련 기업 유치 및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총력 주문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한국 경제의 현재와 전망' 특강

김관영 도지사가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를 돕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9월 소통의 날을 개최, 김관영 도지사가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명사 초청 특강 및 혁신도정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벤치마킹 시점 준비하느라 고생했고, 도지사가 되고 나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칭찬받는 프로젝트인데, 작년 260건의 프로젝트를 대부분 도청에 채택했고 보고가 시작 될 때마다 어떤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가 되고,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직원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느낄 수 있어 가슴 뿌듯했다"며 그동안 최선을 다해

준 직원들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이 "한국 경제의 현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3년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면서 각국 정부의 재정투입 여부에 따라 경제의 회복속도가 달랐고, 미국은 적극 재정투입을 하여 최근 경제가 제일 활발하게

살아나고 있는데, 중국이나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70~1980년대까지는 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의 근면 성실함과 역동성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해왔지만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경제·사회구조는 조화롭지 못하며, 한국의 저출산 노인 빈곤율 등 문제가 심화되어 한국 경제의 미래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결국 사람인데, 미국이 세계적으로 인구정책을 잘하는 나라로 초기부터 이민정책을 잘 추진해왔으며 우리도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도청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3분기 '혁신도정상' 시상에서 최우수상에 미래산업과, 기후환경정책과 2개 부서, 우수상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대외협력과, 자연재난과, 주력산업과 4개 부서에 각각 수여됐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매월 개최하는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전 직원이 도정현안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 특강을 통해 미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지난 15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9월 소통의 날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와 명사특강에 초청된 김종인 대한발전전략 연구원 이사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북도, 업무성과 탁월 6개 부서에 '혁신도정상' 시상

최우수-미래산업과 · 기후환경정책과 수상, 우수-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대외협력과 · 자연재난과 · 주력산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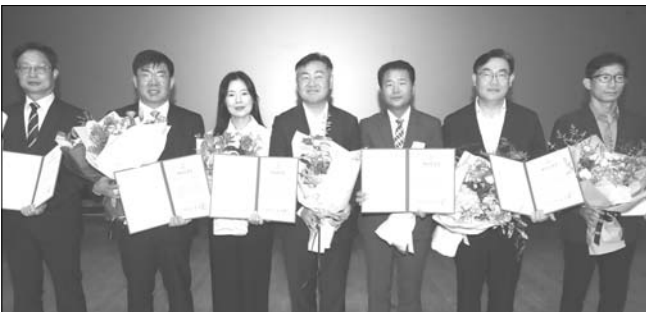
전북도는 지난 15일 9월 중 소통의 날 행사에서 탁월한 업무성과로 전북의 위상을 빛낸 6개 부서를 대상으로 '혁신도정상'을 시상했다.

도는 2023년 3분기에 도청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한 6개 부서(최우수 2, 우수 4)를 최종 확정했다.

최우수 부서에는 미래산업과, 기후환경정책과, 우수 부서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대외협력과, 자연재난과, 주력산업과가 각각 선정됐다.

미래산업과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으로 이차전지 23개 기업의 7조원 투자에 대한 2028년까지 생산유발 효과 65조2,000억원이 예상되며, 20만,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점이 높게 인정을 받았다.

기후환경정책과는 전북 서해안 세계·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전북도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로 인해 규비를 지원받아



지난 15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9월 소통의 날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가 혁신도정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탐방로 조성 등으로 탐방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우수상을 받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바이오 첨단 융합 신산업 발굴 및 유치를 22억 원을 확보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 바이오 융합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이 인정됐다.

대외협력과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최다 쿼터(400명)를 조기에 모집 완료했으며, 도내 대학 및 지역 특화산업을 연

계해 외국인 우수인재의 장기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재난과는 지난 6~7월 호우 피해 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및 중앙피해 조사단 총력 대응으로 국비 657억 원을 확보해 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신속한 응급복구를 지원하고, 선제적 대피·사진통제로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주력산업과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전주) 및 지원사업 공모 선정(익산, 완주)으로 뿌리산업의 차세대 전환을 가속화하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전주, 남원) 등으로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혁신도정상' 선정부서에는 포상금(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을 지급하며, 최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 직무성과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김재훈 기자

제17회 전라북도 과학축전 성료

체험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3만5000여명 참가 코딩 · 보드게임 경연대회 뜨거운 관심... 내년 확대키로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제17회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지난 14일 성황리에 완료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이 개최된 전라북도 과학축전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3만5천여명(오후인 2만여명, 온라인 1만5천여명)이 참가해 전북도민의 과학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과학축전에는 지난 4년간 개최하지 못했던 미래 과학 꿈나무를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가 개최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9월 9일과 10일 양일간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공연장에서 학생 코딩보드게임'과 '지능로봇 경진대회'가 개최돼 총 25명의 학생들이 저마다의 실력을 뽐내며 겨루었다.

청소년의 창의성 개발과 과학 동아리 증진을 위해 개최된 이번 경연대회에는 코딩 저학년부(1~2학년)와 고학년부(3~6학년), 로봇 밑어깨기와 큐브미션

으로 나눠 진행됐다.

64강부터 토너먼트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 각각 금상 은상 동상 부문별 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전라북도지사상, 전라북도교육감상, 전북테크노원장상이 수여됐다.

오랜만에 개최된 경연대회에 예상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됐고, 대회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돼 내년 제18회 전라북도 과학축전에서는 경연대회 프로그램 추가, 예산 사전개회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약 300여개의 체험 키트를 전달했고, 과학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직접 참여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과학축전'은 9월~10월까지 전라북도 8개 시군(무주, 부안, 순창, 장수, 진안, 남원, 고창, 정읍)의 4개교를 방문해 약 3700여 명에게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어린이창의체험관, 추석프로그램 운영

'한가위 전통요리' 등 3개 프로그램... 18일부터 접수 시작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은 추석을 맞아 체험관을 방문하는 가족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추석당일 휴관) 민속놀이, 보름달빔 만들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추석특별프로그램은 '보름달빔 만들기', '한가위 전통요리(송편) 만들기'와 같이 가족과 함께 하는 요리수업과 '나만의 딱지 만들기', '전통놀이 만들기' 창작수업 등 4개 프로그램을 25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투호',

'대형 율놀이' 등 민속놀이 프로그램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프로그램 접수는 어린이창의체험관 누리집(jchild.kr) 체험교육(상상문화센터)에서 18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가 가능하며, 강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추석특별 프로그램 이외에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지난 11일부터 예약 접수자에 한해 오는 24일에 체험관 공연장에서 '오페라 앙상블' 공연도 상연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 추석맞이 상수도 급수대책 마련

14개 시군과 명절연휴 기간 상수도 비상대책반 운영

전북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도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4개 시군 공무원 199명과 상수도 복구 대책팀이 함께 비상 대책반을 편성·운영해 단수 및 누수발생 등 생활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전후 급수량 분석 결과 각종 상수도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

는 14개 시군과 함께 명절 전 취·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상수도 주요 시설에 대해 이반달 27일까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을 사전 점검한다.

또한 시설물 점검 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보수 등 즉시 조치하고, 개선 복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선 응급조치 후 예산을 긴급 편성해 조치토록 시군에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상속재산승인공고

망 조기수(1935. 6. 9.생 2023. 8. 13.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재산승인 및 상속 포기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신용재 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23년단10501 상속재산승인 및 상속포기
- ▶사법보좌관 신용재
- ▶피상속인: 망 조기수(1935. 6. 9.생 2023. 8. 13. 사망)
- ▶최후주소: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0-49 (금암동)
- ▶공고안 조찬민(상속재산승인)
- ▶상속승인 및 포기 수리일: 2023. 9. 15.
- ▶공고기간: 2023. 9. 18. ~ 2023. 11. 17.
- ▶주소(청구 대리인)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1길 9 101호 한울법무사사무소 (덕진동1가, 스카이블루빌)
- ▶송달영수인: 김준영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1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 고경식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